

작품 내용

제 목	만든 사람의 자리
내 용	열 살 무렵의 일이다. 교실 뒤 게시판에 붙일 시화를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나는 며칠을 끙끙대며 여덟 줄짜리 시를 지었다. 장마철 우산 속에서 들던 빗소리를 옮겨 적은, 지금 돌아보면 서툴기 짝이 없는 시였다. 그런데 제출하던 날 아침, 짝궁의 도화지에서 내 시를 보았다. 글씨는 나보다 반듯했고, 곁들인 그림은 나보다 고왔다. 선생님은 그 시화를 게시판 한가운데 붙였고, 아이들은 짝궁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그날 내가 삼킨 감정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지위짐'이었다. 그 여덟 줄은 분명 내 안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 어디에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표시가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시 한 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쓰며 보낸 나의 밤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빼앗긴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을. 어른이 되어 저작권법을 읽다가, 그날의 감정에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은 창작자에게 작품으로 돈을 벌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밝힐 권리, 작품이 함부로 바뀌지 않게 할 권리, 세상에 내보일 때를 스스로 정할 권리. 저작권법이 저작권격권이라 부르는 이 권리들은 남에게 넘길 수도, 물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창작물이 재산이기 이전에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법이 먼저 알고 있었던 셈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못 박아 두고 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약속 문서가 창작자를 따로 챙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름이 지켜져야 창작이 이어지고, 창작이 이어져야 문화가 자라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창작자 한 사람을 위한 배려를 넘어 우리 모두의 문화를 위한 토대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 편의 노래 뒤에는 새벽까지 화음을 고쳐 잡던 손이 있고, 한 장의 사진 뒤에는 같은 자리에서 빛을 기다리던 무릎이 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값을 치르고 이용하고, 출처를 밝혀 인용할 때, 우리는 종이나 파일이 아니라 그 밤과 무릎에 값을 치르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늘 땀땀했던 것은 아니다. 급하게 만들던 발표 자료에 출처 없는 사진을 끌어다 붙인 적이 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글귀를 퍼 나른 적도 있다. 손끝 하나로 무엇이든 옮길 수 있는 시대에 복제는 너무 가벼워서, 그 가벼움에는 죄의식조차 함께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화면 저편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다. 내가 무심코 지운 이름의 주인, 열 살의 나 같은 사람이. 요즘은 기계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유창한 문장과 그럴듯한 그림 아래에는, 그것이 배워 삼킨 수많은 사람의 문장과 그림이 깔려 있다. 기술은 눈부시지만, 그 눈부심이 밑바닥의 이름들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정교한 '지위짐'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구가 어디

까지 발전하든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은 하나다. 만든 사람의 자리를 남겨
둘 것.

나는 저작권이 금지의 울타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호명의 약속에
가깝다. 네가 만든 것을 네 것이라고 불러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
는 사회에서만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음 것을 만든다. 창작은 결국, 자리가
있어야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호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 허락을 구하는 것,
자유롭게 쓰도록 공개된 저작물을 찾아 쓰는 것. 손끝 하나로 복제가 되는
시대라면, 손끝 하나로 이름을 지켜 주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

이따금 열 살의 그 교실을 생각한다. 그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상상도, 짝꿍
을 향한 처벌도 아니었다. “이 시는 네가 썼구나” 하는 한마디, 그거면 충
분했다. 저작권이라는 어려운 말의 알맹이도 결국 그 한마디라고 나는 믿는
다.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불러 주는 것.
그 작은 호명들이 모여,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노래와 시와 그림들의 자리
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